

지켜보고 마음으로 다스려가면서 체험하라!

21면에서 계속

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해를 공부해도 '정(定)'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 10년, 20년이 가도 소용없고,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더디다 이거죠. 그런데 몇 달 안 됐어도, 몇 해가 안 됐어도 정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디고 빠르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래 배웠고 늦게 배웠고 이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이름이지 '이름 없는 마음' 여기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 해서 방편으로 부르는 겁니다. 항상 애기해 드리지만,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연방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어찌구무없이 나쁜 일로 돌아가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정보에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착하게 행을 잘하려고, 말도 잘하려고 하지만 앞서 입력했던 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빙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빙나가는 빙나가지 않은 '무조건 거기가다 말게 놓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말게 놓는다. 믿지 못하면 말게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고 거기가 말게 놓는다면, 실 사이 없이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자동적으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그 어마어마하게 입력했던 팔자 운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상 해 오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절절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하게, 눈물이 뺨에 사무쳐 나오리만큼 안타깝습니다. 어찌 그렇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지 못할까? 어찌 그렇게 과거로부터,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자기를 끌고 온 장본인을 믿지 못할까?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를 시켜 가면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그대로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주인공 원망할 수도 없고, 주인공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아, 태양이 '너 잘못하고, 너 잘못하고' 이런 거 말했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잘못해서 행을 잘못하거나, 마음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것이 속으로부터 자꾸 나오면 그것을 '이름 안 돼!' 하고 거기가다 그냥 말게 놓는 거죠. 말게 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입니다.

나는 어떤 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슬그머니 이 속에서 눈물이 복받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남인데, 자기가 아닌 데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변질해서 돌아갈 때, 이것이 됐다 저것이 됐다, 이 부모가 됐다 저 자식이 됐다, 이렇게 사생(四生)의 모든 천차만별의 생명이 뒤바뀌면서 돌아갈 때는 어떤 것이 내 자식이고, 어떤 것이 내 부모인지 전혀 분간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뭐, 풍뎉이도 그렇고, 개재도 그렇고, 돌고기도 그렇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남여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남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연방 변질이 되고 연방 바뀌어서 돌아가니까 어느 때 어떻게...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죠, 알고 본다면. 그러니 그 돌아가는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 사십구 년을 설하시면서 "나는 생각해 본 예도 없고, 한 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렇다고 하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이거든요. 지렁이 소굴에서는 지렁이가 높고, 호랑이 소굴에서는 호랑이가 높고, 안 그렇

치지 않는다면 예너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는 반면에 '불만이 덩그러니, 밝게 광명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하야간에 모두가, 99%는 부처니까, 중생을 끼고 다녀서 걱정이지,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음의 불이다, 한마음의 광명이다.'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육근(六根)이 어찌니, 육진(六塵)이 어찌니, 육식(六識)이 어찌니, 십팔계(十八界)가 어찌니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과 마음이 외짝 붙으면 불이 들어올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하신다면 '컴컴하든 불을 꺼내 되고' 이 소리가 나옵니다. 왜 컴컴하게 삼니까? 컴컴하면 불을 꺼서 밝게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소화시켜서 똥 누고 싶으면 시원하게 똥 누고, 편안하게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꿈입니다. 한 시간의 꿈! 한 시간의 꿈을 훌쩍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난 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이러겠지요? "그럼, 그렇게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하고 또 따지겠지요?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따집니다. 그러나 벗어나면 벗어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탓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우리가 영화배우들이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임을 맡아서 주어진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소임 소임, 자기 잘하는 대로 소임을 맡아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남한테서 받아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감동이 돼라 이거죠. 즉 말하자면, 육황상제 도 벗어나야 된다는 하하하... 부처라는 것도 벗어나야 부처입니다. 이 태양과 이 산하대지는 그대로 어머니이자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광명을 이루고 창조를 하고, 창조력을 기르고 이력하는 것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모두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지도 들이 아니죠. 어떻게 천지가 들어겠습니까?

LA.에서 도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있죠? 개 눈에는 뽕만 보인다고. 허허허... 나이도 많이 든 백인이 말입니다. 리어카에다가 경동, 병 이런 것만 싣고 땀을 흘릴 줄하면서 뛰어가고 있어요. 뛰는데 다리가 아프고 지치니까 허덕허덕 하면서 그걸 끌고 가요. 게다가 언덕이 이르니까 그냥 허덕허덕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참, 세상에도 모두가 자기가 한 대로 그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왔구나!' 개미가 왜 개미가 된 걸 아십니까? 그 백인이 소임 맡아 가지고 나온 거나, 개미들이 소임 맡아 가지고 나온 거나

뭐가 다릅니까?

소름 한 마리를 잡아서 버리면, 호랑이는 양쪽 팔, 다리를 모두 때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짐승들이 오는데 창자 먹는 놈이 있고, 살 뜯어 먹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뼈에 살 붙은 걸 때어 먹는 새들이 있습니다. 아주 차례차례로 그렇게 소임을 다 맡아 가지고 그렇게 뜯어 먹고 뼈다귀만 남으면 그 때는 개미 차례입니다. 그 뼈다귀 속에 들어 있는 거를 다 먹거든요. 그래, 그 백인이 그러하고 가는 거를 볼 때 개미 생각이 퍼뜩 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개미 좀 봐!' 하고요. '사람의 모습은 가졌지만, 그런 것을 얼마나 과거에 즐겼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사람 개미로서 저렇게 소임을 맡았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망했다 이런 것도 남의 탓 할

둘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서야 놓으니 이미 차 지나간 자리 아닙니까? 하하하... 우리 이용지사 이 자리에 앉았으니 질문도 하세요.

- ▲사회자: 스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속 줄 알았는데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여독과 피로가 풀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 ▲스님: 재밌지 않아요?
- ▲사회자: 오늘 질문은 생각하겠습니다.
- ▲스님: 왜요? 아, 청년 법우들도 있고 그런데 뭐...

- ▲사회자: 다음 기회에 들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명 깊은 법문 감사히 들었습니다.
- ▲스님: 하하하... 이런 강제성이 어디 있었어요? (대중 웃음)

이거 보세요! 내가 아르헨티나로 1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는데, 그날 LA.에서 아주 피곤했어요. (대중 스님들을 보시며) 어디서 왔어요? 아, 콜로라도에서, 콜로라도에서도 또 한참입니다. 거기, 콜로라도에서 바로 와 가지고 설법을 하고 이리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드러누웠더니 애들이 영 가질 못하게 했습니다. 가질 못하게 하니깐, 요계 피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아이, 이거 재들도 그만두라는데 나도 좀 그만 쉬어 볼까?' 이라고 있는데 아, "프르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지원 스님한테서, 전화로 '스님이 오실 줄 알고 다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신다면 어떡합니까? 난 어떡합니까, 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아,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피로하고 뭐고, 어떤 것도! 하늘이 그냥 가로막는 다 하더라도 그냥 외곽 제끼고선 일어나지는 기분이예요. '가자!' 아, 그러니까 일어나집니다. 그런 거 뭐, 아랑곳없어요. 이 세상이 다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좀 열정 있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선 나한테 '아이고, 피로하시니까, 피로하시니까 그냥 쉬십시오.' 이러는데 아니,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뒤로 돌아선다고 죽지 않아요? 전쟁에 나갔던 그런 전진하는 겁니다. 이래 죽어도 한세상, 저래 죽어도 한세상이예요. 하하하... 그렇게 좀 더 빠르빠르하고 결사적으로... '내가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꼬달릴 거다. 그리고 내가 위로 부모의 빚을 갚아서 갚지 않을 수도 없고, 아래로 뿌려 놓은 자식들의 모든 업보도 해결할 수가 없다.' 하고 결사적으로 해 보십시오.

▲사회자: 감명 깊은 법문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2년 8월 2일 범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컴컴하면
불을켜서 밝게 살고
배가고프면 먹고
똥누고싶으면
시원하게 똥누고
잠자고싶으면
편안하게 잠자라
그냥 그대로!**

습니까? 저마다 다 높은 거예요. 저마다 다 높고, 저마다 다 나 아님이 없으니, 자기 아님이 없으니, 자기 아플 아님이 없고 이리니, 따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없죠. '내가 마음을 내서 너희들에게 길을 인도했다.' 이럴 수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 줬다.' 이럴 수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걸로 표현해서 얘기해 드리죠? 즐과 즐, 전진함과 전진함, 전자와 전자라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접근을 해서 모습은 다르지만 간절한 마음이 여기 와 닿을 때, 나도 간절한 마음이 함축이 돼서 가서 부딪치면 불만 번쩍 일어났지, 이 줄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 줄이 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 이럴 수도 없고, '내가 가르쳤다' 이럴 수도 없어요. 네? 저쪽 높도 있으니까. 상대성 원리로서의 이쪽 높과 저쪽 높에 합

**세상이치가
아무리 복잡다단해도
한시간의 꿈입니다
한시간의 꿈을
훌쩍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난데 없이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
벗어나는것입니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하는 길은 '내 탓이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모두 얽히고 얽혀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만이 그 얽힌 거를 풀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 다 맡기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작업이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지켜보는 관법(觀法) 즉, 관해 바라, 지켜봐라 이거죠.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다스려 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주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빨리 일 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급하게 딱지면 아예 있어버려요. 있어버리면 방망이 휘어, 그냥 나온 자리에서 다시 낚아 올릴 텐데, 내보낸 자리에서 도로 놓고, 내보낸 놈더러 해결을 하라고 그래야 빨리 수습이 되는데, 엉뚱하게 딱 데다가 그냥 전부 깔아 놓고는 온통 팔 팔 뛰니까 이걸 더 더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참

제1회 풍수의 미래를 열어가는 풍수지리사 교육연수

전통풍수지리학의 전수와 생활풍수의 신지식 교육연수의 장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실시합니다. 풍수학의 폭넓은 자연관은 이 시대의 신지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에서는

- ▶ 건축 설계 조정 인테리어의 풍수도입 조정, 기법
- ▶ 부동산(토지건물)풍수지리 평가 중개업무 활용
- ▶ 거주환경과 생활문화의 풍수도입장조
- ▶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조화로운 자아의식 개조
- ▶ 풍수학의 건강 다스리기, 풍수지리문화 풍수도행의 원리수행
- ▶ [민간자격] 풍수지리사 양성

교육내용
풍수택일론, 천성지리론, 생활풍수론, 양택론, 음택론 (강사: 신명 선생 직강)

등록안내

- 개강일시: 2007년 8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 교육기간: 2007년 8월 30일 - 10월 25일(9주간)
-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6:30분 - 9:30분(3시간)
- 원서교부: 2007년 8월 29일(수)까지 ■ 자격: 한자 기본실력을 갖춘 성인
- 회비: 300,000원 (교재: 본학회 전용 교재)
- 접수 및 문의: (051)332-6828~9 / 017-554-9310
- 홈페이지: www.hyeonmun.co.kr

교육연수 수료시
본학회 수료증 · 본학회 정회원 입회 가능 · 민간자격 풍수지리사 자격검정응시

미래전망
풍수지리사, 풍수지리전문가, 풍수적전문가, 풍수인테리어, 풍수조경환경, 풍수적토지개발, 풍수부동산, 수액, 지기맥, 양택풍수강좌, 음택풍수심혈, 풍수개발(연구소), 각 문화원 강사, 장묘분야

(사)韓國玄門風水地理學會
• 부산교육장: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70-1 대림타운상가 111호 ☎ 051)332-6828

수제화도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시계절 단화 ■ **소재특징:** 초극세사, 방수원단 **망사 단화**

가볍고 편안한 가벼움과 편안함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 가격: 7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발건장 지압 샌들 **발볼조절기능** **건강슬리퍼**

장기간 보행시 발이 편안합니다 미끄럼 방지 (스립스 유역면) 바이오실리온 바이오실리온

조각세사 방수원단 조각세사 방수원단 조각세사 방수원단

• 가격: 90,000원 • 가격: 50,000원
• 규격: 230-280mm (10mm 단위) • 규격: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회색, 검정 • 가격: 10,000원 • 색상: 진회색

최고의 신발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 도시 하실 분 상담 환영

-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사 063)274-6839
-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동 062)228-2870 • 서울: 부산동북 02)738-8407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 대우동북 042)254-8772 • 제주: 김윤경동북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성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영천): 부다불교점 054)655-2525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개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경계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동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황이 든 어혈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031)775-1285 **지수 대진 입장**